

【 2017.11.02(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일 오후 2
시30분 제주 메
종글래드호텔에
서 열리는 '2017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

건협, 오늘부터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일과 3일 이틀간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2017 건설산업 CEO 미래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건설단체장, 국회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주제는 '건설이 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연사로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등이 나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T 기술혁신 현황과 'J노믹스' 등 정부정책에 관해 강연한다. 또한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우리 건설 산업은 지난 70년간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써 왔다"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기혁신을 통해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 상근부회장에 정병운 전 국토부 실장 선임



(사진)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일자로 정병운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다. 신임 정 부회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 대통령 국토해양비서관,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다.